



미국 불평등의 현 주소, 소득불평등보다 심각한 재산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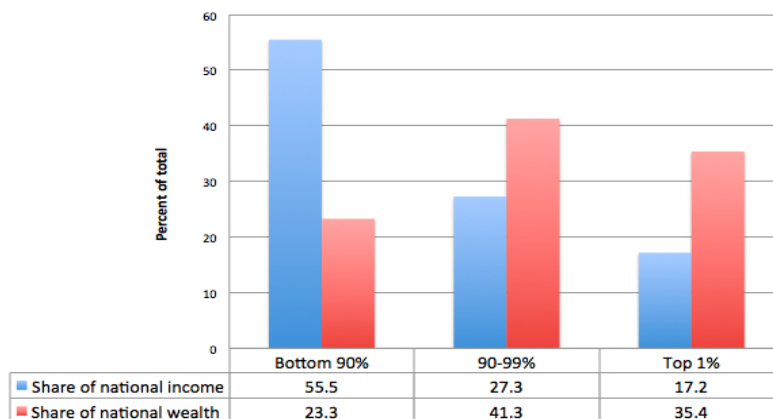
2013.07.11 | 여경훈 새사연 연구원 | khyeo@saesayon.org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스웨덴의 부의 분포 상태를 선호하며 소득 상위 20%가 전체 부의 59%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실제 미국의 상위 20%는 전체 부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부의 불평등 정도를 실제보다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보다 더 균등한 분포 상태를 선호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진보적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EPI)에서 경제적 불평등 수준, 원인, 그리고 해결 방안 등을 동영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홈페이지(www.inequality.is)를 만들었다. 클린턴 정부 시절 노동부장관이었던 라이시(Reich) 교수가 불평등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설명하는 동영상에 등장하기도 한다.

통상 경제적 불평등이라고 하면, 소득불평등을 말하지만 실제 부의 불평등은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두 배 정도 심각하다. 미국의 상위1%는 전체 소득의 17.2%, 부의 35.4%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1] 소득불평등보다 심각한 재산불평등



* 자료: EPI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1983~2010), 미국의 상위5%는 전체 부의 증가분의 74.2%를 차지하였다. 특히 상위1%는 전체 증가분의 38.3%를 독차지 하였다.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고 주가지수와 부동산가격이 폭등함에도 불구하고 하위60%의 부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러한 부의 불평등 확대가 소득불평등 확대의 주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불평등보다 부의 불평등을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바라보아야 필요성이 존재한다. 계층 간 이동성의 고착화, 정치적 파워, 부와 소득의 대물림 등의 사회 문제는 소득보다 주로 재산의 불평등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의 금융화¹⁾에 따라 부의 불평등이 소득불평등을 확대하는 기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임금보다 금융자산의 회복 속도가 더 빠르며, 금융소득은 근로소득보다 더 낮은 세율로 과세되고 있는 현실은 이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소득불평등보다 부의 불평등이 더욱 심각하다면, 소득세율 인상보다 부유세 신설, 상속세 및 보유세 강화가 더욱 중요한 경제 개혁 과제일 수 있다.

아래는 미국 사회 부의 불평등을 다룬 흥미로운 동영상¹⁾이 있어 소개한다. 지난 해 11월, 유튜브에 올라온 화제작[미국의 부의 불평등(Wealth inequality in America)]으로 65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였다. politizane이라는 닉네임으로 올라온 동영상은 2011년 Ariely와 Norton 교수의 부의 불평등에 관한 논문, ‘더 나은 미국을 만들기 위해(Building a Better America)’ 등을 기초로 하였다. 상당히 흥미로운 그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더 나은 미국을 만들기 위하여

(Building a Better America—One Wealth Quintile at a time)

2011년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Ariely & Norton

흥미롭게도 미국인들의 대다수는 스웨덴의 부의 분포 상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자들은 철학자 롤즈의 ‘무지의 베일’ 원리를 적용하여 가장 이상적인 재산의 분포 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임의로 조합된 두 쌍의 재산의 분포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 질문하였다. 아래 중앙에 있는 파이 차트가 미국의 재산 분포이고, 좌측 상단의 차트가 스웨덴의 소득 분포이다. 실제 스웨덴의 재산 분포는 미국보다는 균등하지만 소득 분포보다는 불균등하다. 미국인의 92%는 스웨덴의 분포 상태를 선호하였고, 이는 성별(여성:92.7%, 남성:90.6%), 정당(부시 투표자: 90.2%, 케리 지지자: 93.5%), 소득 수준(5만 달러 미만: 92.1%, 5만~10만: 91.7%, 10만 이상: 89.1%)과 거의 무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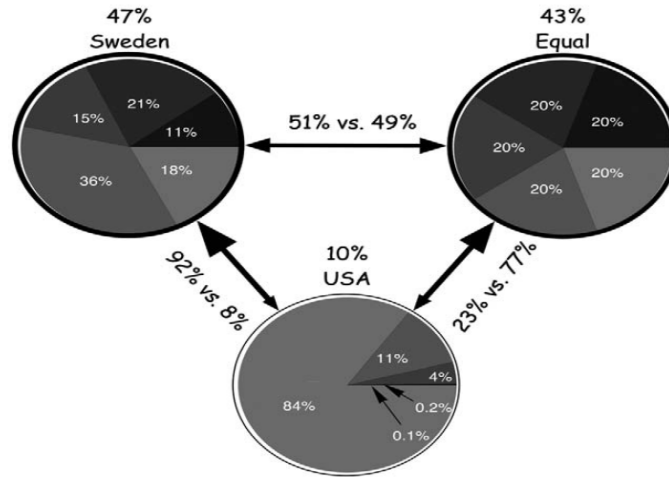
1) 과도한 금융시장의 확대, 금융시장의 세계화를 일컫는다.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그림2] 미국인들은 어떤 사회를 선호하는가?



또 하나 흥미로운 결과는 미국인들의 재산 분포에 관한 이상, 인식, 그리고 현실 간의 엄청난 갭에 관한 조사다.

[그림3] 부의 불평등 인식, 이상, 그리고 현실 간의 괴리



미국인들은 상위20%가 전체 부의 59%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미국의 상위20%는 전체 부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위의 그림에서 보이지 않지만, 최하위 20%는 전체 부의 0.1%, 그리고 하위 20~40%는 전체 부의 0.2%만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하위 40%가 전체 부의 0.3%만을 차지할 정도로 부의 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그리고 이상적인 부의 분포로는 상위20%가 1/3 수준인 32% 정도를 차지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부의 불평등 정도를 실제보다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추정보다 더 균등한 분포 상태를 선호하고 있는 것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이다. 그리고 위의 결과는 성별, 정당, 그리고 소득 수준과 거의 무관하였다. 더욱 균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적 합의는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저자들은 결론에서, 왜 미국인들은 더 균등한 사회를 압도적으로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부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재분배 정책을 압도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는지 의문을 던졌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소득이 낮을수록 박근혜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들이 내린 잠정적인 대답은 아래와 같다.

첫째, 실제 부의 불평등 정도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단순히 현실과 인식 사이의 간극 간극에서 비롯되었다.

둘째, 부의 불평등 정도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마찬가지로, 계층 간 이동성의 기회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메리칸 드림으로 대표되는 ‘기회’에 대한 과도한 낙관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부의 불평등을 용인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셋째, 그 누구도 선호하지 않는 심각한 불평등이 정치적 신념과 관계없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정치적 담론에서 불일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넷째, 미국인들은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태도, 자신의 이해관계, 그리고 공공정책에 대한 선호 간에 일관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따라서 부의 분포에 관한 이상과 현실 간 간극을 인식하더라도 그 간극을 줄이는 정책을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원문 게재 사이트:

<http://www.inequality.is/>

<http://www.people.hbs.edu/mnorton/norton%20ariely%20in%20press.pdf>

<http://www.fastcoexist.com/1681517/this-viral-video-will-change-how-you-think-about-wealth-distribution-in-the-us>



2013년 새사연의 '세계의 시선' 목록

2013년 7월 10일 현재

아젠다	발간 일	제목	작성자
세계의 시선	1/11	세계 경제 침체에 가려져 놓쳐서는 안 될 문제들	이수연
세계의 시선	1/28	금융위기와 가계부채, 그리고 신용 협동조합	김병권
세계의 시선	1/25	경제위기와 보건의료정책, 그리고 건강	이은경
세계의 시선	1/27	루비니 교수가 말하는 2013년 경제의 5대 위험	김병권
세계의 시선	2/1	국제노동기구가 제시하는 공정한 성장을 위한 길	김수현
세계의 시선	2/12	소득 불평등에 대한 미국 보수의 반격?	여경훈
세계의 시선	2/14	세계적 불황에 누가 가장 취약한가?	최정은
세계의 시선	2/19	주민들의 건물 공동소유로 높은 임대료 극복하기	이수연
세계의 시선	3/9	브라질 전 대통령 룰라가 평가하는 차베스	김병권
세계의 시선	3/12	단기 자본 수익에서 벗어나는 것이 창조경제	이수연
세계의 시선	3/21	싱가포르가 저출산에 대처하는 방법	최정은
세계의 시선	3/26	EU, 심각한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나서	김수현
세계의 시선	3/29	뱅크런과 구제금융 ABC	여경훈
세계의 시선	4/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백년만의 영국 연금개혁	이은경
세계의 시선	4/9	영국 아빠들이 '출산휴가' 를 거부하는 이유	최정은
세계의 시선	4/16	아베가 쏘아 올린 세 가지 화살	여경훈
세계의 시선	4/23	고용 회복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 정책 필요	김수현
세계의 시선	4/30	자신의 국민과 싸운 '철의 여인' 대처	김병권
세계의 시선	5/7	재정 긴축을 놓고 충돌하는 세계	이수연
세계의 시선	5/14	'복지 여왕' 의 신화에서 벗어나라	이은경
세계의 시선	5/21	일본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경험의 시사점	최정은
세계의 시선	5/24	규제가 없다면 선한 자본도 없다. 애플도, 구글도.	김병권
세계의 시선	5/28	신자유주의는 민주주의의 반대말	여경훈
세계의 시선	6/4	OECD, 한국에 실직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 권고	김수현
세계의 시선	6/10	동아시아 산업정책 경험과 아프리카의 발전	김병권
세계의 시선	6/19	퀘벡 상티에 2006년 선언, "사회적 경제는 옳았다!"	이수연
세계의 시선	6/25	맨큐의 1%를 위한 변론	여경훈
세계의 시선	7/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한 조세회피	김병권
세계의 시선	7/11	미국 불평등의 현 주소, 소득불평등보다 심각한 재산불평등	여경훈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